

# S 스포츠

14 전남매일

2019년 10월 10일 목요일

## 채은성 동점포·페게로 썬기포 LG, 잠실서 반격...4-2 승리

벼랑 끝에 몰렸던 프로야구 LG 트윈스가 결정적인 홈런 2방으로 기사회생했다.

LG는 9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19 신한은행 마이카 KBO 포스트시즌 준플레이오프(준PO·5전 3승제) 3차전에서 채은성의 동점포와 카를로스 페게로의 썬기포를 앞세워 키움 히어로즈를 4-2로 꺾었다.

이날 졌다면 시즌을 마칠 뻔했던 LG는 1승 2패를 거둬 시리즈를 4차전으로 몰고 갔다.

1~2차전 내리 끝내기 승리를 거둔 키움은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1패를 당했다.

양 팀의 준PO 4차전은 10일 오후 6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선취점은 키움의 몫이었다.

키움 2번 타자 이정후는 1사 후 우전 안타로 출루한 뒤 박병호 타석 때 LG 선발 투수 케이시 켈리의 폭투가 나오자 재빨리 2루를 뚫었다.

이어 박병호의 좌전 적시타 때 홈을 밟았다.

키움은 2회에도 이지영, 김규민의 연속안타로 2사 1, 2루를 만들고 서건창의 중전 안타로 2-0으로 앞섰다.

LG는 2회 말 한 점을 따라붙였다.

채은성, 유강남의 볼넷으로 잡은 2사 1, 2루에서 8번 타자 정주현이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적시타를 쳤다.

1-2인 4회에는 채은성이 키움 원손 선발 투수 이승호의 빠른 볼을 견어 올려 좌측 펜스를 넘어가는 솔로포를 터뜨려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다.

포스트시즌 7타수 무안타로 침묵하던 카를로스 페게로는 8회 키움 김상수의 포크볼을 퍼 올려 우측으로 향하는 비거리 135m짜리 아이치를 그려 썬기포를 박았다. /연합뉴스

## 실전형 모의고사 앞둔 김학범호 팀내 선의의 생존 경쟁 뜨겁다

2020 도쿄 올림픽을 향한 길목에서 만날 우즈베키스탄과 '실전형 모의고사'를 앞둔 22세 이하(U-22) 축구 대표팀의 또 다른 키워드는 '생존 경쟁'이다.

올림픽 예선을 겸해 내년 1월 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챔피언십 조별리그 상대인 우즈베키스탄과의 탐색전 외에 '팀 내 경쟁'에서 다른 선수보다 우위를 보여야 하는 것도 선수들의 과제다.

김학범 감독은 이번 평가전을 위해 26명의 선수를 소집했는데, AFC 챔피언십 엔트리는 23명이다. 더 나아가 도쿄 올림픽 본선에는 18명만이 선수를 받는다.

더구나 지난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우승 멤버도 일부 포함돼있어 김 감독에게 눈독을 받기 위한 선수들의 경쟁 강도는 한층 높아졌다.

소집 사흘째인 9일 화성종합경기타운 보조경기장에서 만난 김진규(22·부산)는 "미드필드의 전 지역을 볼 수 있다. 볼 소유나 패스, 팀플레이와 경기 운영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제 기량을 발휘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진규는 6월과 지난달 소집, 이달 평가전까지 모두 이름을 올렸지만, 김 감독이 중원에 다양한 선수들을 발탁하고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처지다.

그는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감독님이 점점하시려다 보니 선수가 때 바뀌는 것 같다. 허리가 탄탄해야 수비나 공격도 잘 할 수 있으니 더 신경 쓰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저는 제가 가진 것을 보여주는 것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양궁 종합 1위를 차지한 광주 양궁선수단이 9일 경북 예천 진호국제양궁장에서 파이팅을 외치며 자축하고 있다. (사진 왼쪽) 순천여고는 9일 육군사관학교 정구장에서 열린 소프트테니스 여고부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양궁 종합 1위를 차지한 광주 양궁선수단이 9일 경북 예천 진호국제양궁장에서 파이팅을 외치며 자축하고 있다. (사진 왼쪽) 순천여고는 9일 육군사관학교 정구장에서 열린 소프트테니스 여고부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 광주 양궁 2년만에 종합우승 탈환

광주시 선수단이 9일까지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금메달 43개, 은메달 45개, 동메달 71개(오후 6시 현재), 종합득점 2만2,194점으로 역대 원정 체전 최고 득점을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양궁이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효자종목'임을 재확인했다.

광주양궁은 이번 체전에서 금메달 5개, 은메달 8개, 동메달 2개를 따내는 선전에 힘입어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종목종합득점 1,639점과 종목메달득점 435점을 더한 종목총득점 2,074점으로 경기(2,002점)와 대전(1,790)을 제치고 우승했다. 전국체전 양궁 종합우승은 지난 98회 대회 이후 2년만이다.

광주는 개인 종목에서 '여고생 국가대표' 안산(광주체고 3년)이 3관왕에 오른 것을 비롯해, 김민서(광주여대 1년)와 박세은(광주체고 3년)이 개인종합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눈부신 선전을 펼쳤다.

안산은 여고부 개인종합에서 같은 학교 박세은과 접전 끝에 패해 은메달을 추가했다.

박세은과 탁해운(광주체고 1년)은 거리별 경기 60m와 50m에서 은메달을 따냈고, 정시우(광주여대 3년)도 60m 경기에서 은메달을 보냈



다. 김민서도 70m 경기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자부에서는 남자대학부 김정훈(조선대 1년)과 남자고등부 이원주(광주체고 2년)가 30m경기에서 각각 은메달을 따냈다.

단체전 선전도 돋보였다.

전·현직 국가대표들이 포진한 여자일반부 광주시청(이특영·김소연·최민선·기보배)은 승승장구 끝에 결승에 안착했으나 대전시체육회에 세트스코어 4-5로 아쉽게 패해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지난 8월 창단과 동시에 돌풍을 일으킨 조선대(이진용·김정훈·이성준)도 결승에서 한체대에 패해 첫 전국체전 메달을 은빛으로 마감했다.

이밖에 남자고등부 광주체고(유인선·강민재·

안산 3관왕 등 종별 고른 성과 금5 은8 동2개  
광주시청 배천미 세단뛰기 금메달 7연패 달성  
순천여고 소프트테니스 전종목 석권 '금자탑'  
광양시청 최복음 볼링 마스터즈 8번째 금메달

이원주·김상현)도 동메달을 추가하며, 막바지 광주선수단 순위 상승에 힘을 보탤다.

광주양궁은 남녀 초등부 6개 팀, 중등부 4개 팀, 고등부 광주체고(남녀), 대학부 조선대(남)·광주여대, 광주시청 여자팀 등 탄탄한 연계 육성 시스템으로 그동안 주현정, 기보배, 최미선, 이특영, 최민선, 김소연, 안산 등 올림픽메달리스트와 수많은 국가대표를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초·중·고·대학·일반부 선후배들이 한자리에 기량을 겨루며 노하우를 전수받는 광주시청회장배 대회 등 체계적인 합동훈련 시스템이 정착돼 목표를 향한 동기부여는 물론 지속적인 경기력 향상을 이어왔다.

김성은 광주시양궁협회 전무이사(광주여대 감독)는 "협회의 지원과 관심, 지도자들의 열정,

선수들의 투혼이 함께 어우러져 결과 역대 최고 성적이라는 좋은 결과를 거둔 것 같다"며 "이번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선수·지도자들은 최선을 다해 최강 광주양궁의 전통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예상외의 부진을 겪고 있는 전남 선수단에도 금빛 소식이 전해졌다.

순천여고가 9일 육군사관학교 정구장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소프트테니스(정구) 여고부 단체전에서 경북선발을 3-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6일 개인복식(김여진, 김은진)과 개인단식(김민주)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했던 순천여고는 이날 단체전까지 금메달을 휩쓸며 지난 1985년 팀 창단 이래 처음으로 전종목 석권이라는 금자탑을 달성했다.

볼링에서는 광양시청 최복음(32)이 마스터즈 금메달을 획득했다. 지난 2006년 입단 첫째 우승을 비롯해 2009-2014년 6년 연속 마스터즈 금메달 기록을 가지고 있던 최복음은 올해 우승으로 전국체전 이 종목 총 8회 우승 기록을 세웠다. 최복음은 올해 체전에서 금·은·동메달 1개씩을 기록했다. /최진화 기자

## 광주 배구 들썩... "할 수 있다" 최고 소득

전자공고·조선대·호남대 동메달... 종합 3위  
지역사회 지원 선수·지도자 의지 값진 결실

광주 배구가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동메달 3개로 종합 3위에 오르며 광주선수단의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최근 2년간 전국체전 '노메달'의 부진을 씻어낸 쾌거다.

광주 배구는 남고부 전자공고, 남대부 조선대, 여자일반부 호남대가 각각 동메달을 획득했고, 여고부 광주체고도 8강에 오르는 선전을 펼치며 전체 시·도중 종합 3위를 기록했다.

광주는 지난 97회 체전에서 광주체고와 여고부 동메달을 획득한 이후 3년 만에 메달을 수확하는 기쁨을 누렸다. 특히 이번 체전에서 동메달을 수확한 팀들은 신생팀, 팀 외해 위기 등을 딛고 '한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었다.

호남대 여자배구는 팀 창단 2년에 불과한 새내기임에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는 기쁨을 도왔다. 무엇보다 8강전에서 접합한 서울여대의 경우 체전 이전까지 올해 두 차례 만나 0-3으로 패했던 팀이어서 더욱

뜻깊었다. 남고부 동메달을 따낸 광주전자공고는 올해 전국대회 첫 입상을 동메달로 장식했다. 전자공고는 이전까지 올해 3차례 전국대회에 출전했지만 4강 이상 진출에는 실패했었다.

조선대도 올해 대학리그에서 완패를 안겼던 충남대를 이기고 동메달을 걸었다. 충남대는 지난해 체전에서 조선대에 1회전 탈락 아픔을 안긴 팀이기도 하다.

비록 8강에 그쳤지만 광주체고 여자배구도 박수를 받을 만 했다. 지난해 이맘때만 해도 광주체고는 선수가 3명에 불과해 해체위기에 직면했었다.

이처럼 약체로 평가받던 팀들이 올해 체전에서 값진 결실을 맺은 것은 광주배구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지역사회 노력과 선수·지도자들의 열정이 모아지면서 가능했다는 평가다.

호남대는 어려운 사화 현실에도 2년 전 여자배구팀을 창단, 지역 출신 선수들의 연계육성을



호남대학교가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배구 여자일반부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광주배구협회 제공

마련했다.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체육회는 학생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 우수지도자를 선발, 지도를 맡겼다. 협회는 결단식에서 바베큐 파티를 열어 장도에 떠나는 선수들을 격려할 만큼 사기진작에 노력했다.

광주배구는 이번 체전에서 외형적 성과보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게 가장 큰 수확이다. 광주배구는 과거 대한민국 배구계를 이끌 정도로 많은 우수선수를 배출했으나 최근 수년 동

안 침체기였다. 따라서 이번 체전은 광주 배구계로서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전갑수광주시배구협회장은 "어려운 여건에서 좌절하지 않고 광주배구를 일으켜주는 선수, 지도자들과 육성팀 관계자, 광주시체육회에 큰 감사를 드린다"며 "올해 체전을 계기로 배구가 광주 시민들에게 많은 기쁨을 주고, 청소년들에게는 꿈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진화 기자

## 조선대 농구 리그 전패 불명예 딛고 동메달

전국체전 4년만에 4강...강양현 감독 부임후 성과

조선대학교 남자농구팀이 지난 2015년 제96회 전국체육대회 동메달 이후 4년만에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올 시즌 대학리그와 MBC배 모두 승리와 연을 맺지 못하고 전패했던 조선대는 전국체전에서만 2승을 거두며 메달까지 거머쥐었다.

조선대는 9일 서울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남자일반부 경희대와의 결승에서 54-83으로 지면서 동메달을 확정했다.

조선대는 지난 6일 더블-더블을 작성한 포워드 장우영(3년·19점 11리바운드)과 신진민(4년·10점 11리바운드)의 활약을 앞세워 경북 대표 동국대를 56-50으로 꺾고 시즌 첫승을 거뒀다. 지난 8일 울산대와의 8강전도 119-103으

로 이기며 4강에 진출했다.

조선대는 최근 3년간 전국체전에서 무득점으로 부진했다. 대학리그 12개 1부 대학중 가장 약팀이기도 하다. 올해는 대학농구 U-리그에서 16전패를 당했고 MBC배 전국대학농구대회에서도 예선 3경기를 모두 졌다. 하지만 전국체전에서는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으로 감격적인 승리를 안았다. 지난 5월 부임한 강양현 감독의 지도력이 전국체전부터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라는 평가다.

강양현 감독은 훈련량을 늘리고 남자고교팀을 상대로 연습경기를 치르는 등 경기력을 끌어올리며 전국체전에 초점을 맞춰 훈련을 해왔다. 이에 시즌 전패에도 불구하고 경기력은 향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고, 국내 최고 대회인 전국체



조선대학교 남자농구팀이 9일 서울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 오순근 시체육회 사무처장(오른쪽)이 격려하고 있다. /조선대 제공

전에서 승리를 일궈냈다. 강양현 감독은 "너무 오랜만의 메달이라 정말 기쁘다"며 "리그에서 어려운 경기를 했는데 일

년중 가장 큰 대회인 전국체전에서 승리를 하고 메달까지 획득해 감개무량하다"고 밝혔다.

/최진화 기자